

## 시조 한역 자료의 현황과 그 성격

김명순\*

### 〈국문초록〉

본고의 연구 목적은 한국 전통시가의 대표적인 장르인 시조를 한시로 번역한 시조한역시 자료의 전체 현황을 정리하는 것이다.

시조의 한역은 주로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이루어졌다. 본고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조를 한역한 문인은 120명 정도이다. 한역 된 시조는 작품이 밝혀진 것이 759수이고 원시조를 확인하지 못한 것이 135수이다. 따라서 900여수에 가까운 시조가 한역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시조 1수가 여러 편의 한역시로 번역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 시조 한역시는 더 많다. 본고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체 한역시는 1356수에 달한다. 결국 시조 900여 수가 한시 1400여 수로 한역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시조의 한역은 한두 편씩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10여수에서 100수가 넘는 작품에 이르기까지 연작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 연작시에는 유행하는 시조 가운데서 임의로 수집에서 한역한 경우와 원래 연작형을 이루고 있는 특정 작품이나 특정 인물의 작품만 한역한 경우가 있다. 전자는 신위의 <소악부>를 비롯해서 22인의 한역시 연작 27편이 있고 전체 한역시는 652수이다. 후자는 송시열이 번역한 <고산구곡가변문> 10수를 비롯해서 30인의 연작 26편이 있고 전체 한역시는 525수이다. 그리고 1수에서 5-6수 정도로 단편적인 형태를 이루고 있는 시조 한역시 단편은 70여 인의 작품에 한역시는 180수 정도가 된다.

본고를 통하여 방대한 시조한역시의 규모와 자료 문헌적 성격이 드러났다. 한시 양식으로 번역되어 전승된 시조 한역시 자료는 시조의 창작과 전승과정 등을 연구하는 데 필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며, 국문문학과 한문학이 상호작용한 교섭양상과 조선 후기 한시사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 데 귀중한 자료적 가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핵심어 : 시조, 시조 한역, 한역시, 시조 한역시, 소악부

\* 대구한의대학교 교수.

## 1. 서론

시조의 한역은 국문학 연구 초기부터 선학들에게 주목을 받은 이래, 그 동안 자료 소개와 정리, 개별 작품의 성격에 대한 논의, 일정한 경향 및 유형에 대한 연구, 시조 한역 전반의 성격에 관한 논의, 역사적 전개 양상에 대한 연구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시조한역 자료는 박노춘, 심재완, 정병욱, 박을수 등이 각각 정리한 바 있는데<sup>1)</sup>, 가장 많은 자료를 정리한 박을수의 작업에 의하면 20세기 이전에 이루어진 시조한역시는 모두 915수로 나타나며,<sup>2)</sup> 조동일의 『한국문학통사』에서는 “시조 전체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500여 수가 한시 700여 수로 한역되었다.”<sup>3)</sup>고 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새로운 자료들이 지속적으로 발굴 소개되어 자료의 규모가 훨씬 늘어났으며, 시조한역의 일반적 성격을 다룬 저술도 나왔다.<sup>4)</sup>

그동안 시조한역에 대한 논의는 주로 민간에 유행하는 시조를 채집하여 상당한 규모를 이루는 연작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특정인의 특정 작품을 대상으로 한 한역시 연작과 10수 미만의 소규모이거나 단편적인 한역시들은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특정 작품의 한역시도 시조의 창작 배경과 수

1) 심재완, 「시조한역일람」, 『교본역대시조전서』, 세종문화사, 1972. 박노춘, 「시조한역총람」, 『국어국문학』 62·63, 1973. 박노춘, 「시조한역사화총집」, 『어문연구』 5·6, 일조각, 1974. 정병욱, 『시조문학사전』, 신구문화사, 1982. 박을수, 「시조한역문헌」, 『시조문학사전』, 아세아문화사, 1992.

2) 박을수, 「시조한역문헌」, 『시조문학사전』, 아세아문화사, 1992, 1531-1564쪽.

3)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 지식산업사, 263쪽.

4) 최근에 나온 관련 논저를 보면 다음과 같다. 김문기·김명순, 『조선조 시가한역의 양상과 기법』, 태학사, 2005. 조혜숙, 『조선후기 시조한역과 시조사』, 보고사, 2005. 장정수, 「옥소 권섭의 시조 한역시〈번노파가곡십오장〉 및 관련 작품에 대하여」, 『어문논총』, 44, 한국문헌어학회, 2006. 김윤조, 「유득공의 시조 한역」, 『문헌과해석』, 40, 태학사, 2007. 김명순, 「이항 시조의 한역에 대하여」, 『시조학논총』, 28, 한국시조학회, 2008. 김명순, 「반계 류형원의 시조 한역 양상과 의미」, 『국어교육연구』, 42, 국어교육학회, 2008.

용 양상 및 전승 과정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소규모 작품들도 전체적으로는 상당한 분량이 되고 성격도 다양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자료들을 포함하여 시조 한역시 자료의 전체적 현황과 성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만 그 전반적 성격이 드러날 것이다. 이에 본고는 시조한역시 자료의 전체적 현황을 정리하고 그 전반적 성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2. 민간 시조를 채집한 시조 한역시 연작

본고의 조사에 의하면 19세기까지 지어진 전체 시조 한역시는 1356수에 달하며 이 중에서 10수 이상의 연작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이 1177수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곧 시조 한역시는 대부분 연작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작 형태에는 당대에 민간에 유행하는 시조를 임의로 채집하여 한역한 작품과 특정 인물의 특정 작품을 집중적으로 한역한 것이 있다. 전자의 경우는 22인의 한역시 연작 27편에 전체 한역시는 652수에 달하고, 후자의 경우는 30인의 연작시 26편에 전체 한역시는 525수에 이른다. 그리고 1수에서 5-6수 정도의 단편적인 형태를 이루고 있는 한역시 단편은 한역자 70여 명에 한역시는 180수 정도가 된다. 따라서 시조를 한역한 인물은 약 120명에 이르고 전체 시조 한역시는 1350수가 넘는 규모가 된다. 그리고 확인된 한역대상 시조는 759수이고, 이 중에서 173수는 2편 이상으로 한역되었으며, 이처럼 중복해서 한역된 한역시는 571편에 이른다.

여기서는 먼저 당대 민간에 유행하는 시조를 채집하여 한역한 시조 한역시 연작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李民寔(1570~1629)

聞人唱俚歌韻而詩之(敬亭集) 12수

|                |                    |
|----------------|--------------------|
| 柳馨遠(1622~1673) | 翻俗歌(磻溪逸稿) 17个      |
| 南九萬(1629~1711) | 翻方曲(藥泉集) 11个       |
| 李基休(1650~1710) | 短歌十九章(不世堂集) 19个    |
| 李衡祥(1653~1733) | 浩曙謳(瓶窩集) 16个       |
| _____          | 今俗行用歌曲(芝嶺錄) 59个    |
| 南夏正(1687~1751) | 里巷雜曲(桐巢遺稿) 9个      |
| 任 珽(1694~1756) | 翻方曲(巨齋遺稿) 15个      |
| _____          | 夜聞歌漫筆翻錄(巨齋遺稿) 8个   |
| 南肅寬(1704~1781) | 短謠(八灘公遺稿) 13个      |
| 李敏輔(1717~1799) | 樂府(豐墅集) 8个         |
| 洪良浩(1724~1802) | 青丘短曲(耳溪集) 40个      |
| 馬聖麟(1727~1798) | 古詩十七首(安和堂私集) 17个   |
| _____          | 戲贈美妓(安和堂私集) 15个    |
| _____          | 長短詞十五首(安和堂私集) 8个   |
| _____          | 古歌新翻(頤齋亂稿) 29个     |
| 黃胤錫(1729~1791) | 古歌新翻續十四章(頤齋亂稿) 14个 |
| _____          | 東調(東埜集) 64个        |
| 金養根(1734~1799) | 東人之歌(古芸堂筆記) 15个    |
| 柳得恭(1748~1807) | 小樂府(警修堂全藁首) 40个    |
| 申 緯(1769~1845) | 東謳(農家月俗詩) 30个      |
| 權用正(1801~?)    | 小樂府(嘉梧藁略) 45个      |
| 李裕元(1814~1888) | 教坊歌謠(教坊歌謠) 96个     |
| 鄭顯爽(1817~1899) | 續小樂府(三家樂府) 10个     |
| 李裕承(1835~?)    | 樂府(玄鶴琴譜集) 15个      |
| 吳憲常(19세기)      | 續樂府(三家樂府) 7个       |
| 元世洵(19세기)      | 小樂府(紫霞小樂府) 10个     |
| 譯者 未詳          |                    |
| _____          |                    |
| 沈衡鎮(20세기초반)    | 詠歎餘塵(新民 32호) 100个  |

|                |                         |
|----------------|-------------------------|
| 權相老(1879~1965) | 永言漫譯(退耕譯詩集) 312수        |
| 金春東(1906~1982) | 讀申紫霞小樂府效其體補其闕(云丁散藁) 15수 |

위의 작품들은 당대 향간에 유행하던 다양한 시조를 한역자가 임의로 채집하여 한역한 것들이다. 이러한 유형의 작품은 19세기까지 22인의 연작시 작품 27편에 전체 한역시는 652수로 시조 한역시 전체의 절반 정도가 되며, 20세기에도 400수가 넘는 작품이 지어졌다.

위의 자료에서 보듯이 『청구영언』이 나오기 이전에 이미 향간에 유행하던 시조가 채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민성과 유형원은 16-17세기에 생존했고, 남구만과 이기휴도 17세기에 생애의 대부분을 보냈던 인물들이다. 이형상의 작품도 『청구영언』이 나오기 전에 한역된 것들이다.<sup>5)</sup> 이민성, 유형원, 남구만, 이기휴, 이형상 등은 金天澤(1690~?)보다 먼저 시조를 채집한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한역된 상태이지만, 이러한 작품들은 가집이 편찬되기 이전의 시조를 기록으로 보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조 자료로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작품은 18-19세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18세기에 11인의 작품 16편, 19세기에 9인의 작품 9편이 이루어졌다. 앞에서 보았듯이 18세기 이전에도 이민성 등에 의해 본격적인 시조 한역이 시작되었지만, 시조의 한역은 18-19세기에 매우 왕성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남숙관의 단요 13수는 원래 한역시 40수 가운데서 뽑은 것이고,<sup>6)</sup> 김양근의 동조 64수는 한역시 180수 중에서 선별하여 문집에 실은 것이라고 하였다.<sup>7)</sup> 18-19세

5) 김문기·김명순, 앞의 책, 82면, 참조.

6) 南肅寬, 『八灘公遺稿』, 〈短謠〉, “短謠四十首選十四.”

7) 金養根, 『東塾集』 권4, 〈東調〉, “間中日閱東人雜調, 以爲禦眠遺懷之資. 雖其作者命意 各有雅俗之不同, 而風謠被絃亦不害爲勸懲之一助矣. 余於樂府素蔑裂, 而只効郭敬言之入洛聽歌, 雖不解曲亦言佳, 引喉一唱三歎不足, 又輒逐一翻成, 凡詩百八十首.”

기에 이러한 형태의 시조한역이 하나의 경향을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작품 형식을 보면 이민성의 작품은 5언4구형의 고풍 단편이고, 유득공의 작품은 오언절구이며, 신위, 권용정, 이유원, 정현석, 이유승, 오희상, 원세순의 작품과 역자 미상의 〈소악부〉 10수 등 253수는 칠언절구체이다. 마성린의 단가해 중 〈고시십칠수〉 17수와 〈회증미기〉 8수는 7언4구형 고시체이다. 특히 마성린의 단가해 중 〈長短詞十五首〉는 장단사라는 독특한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 이형상의 〈호파구〉 16수, 임정의 〈번방곡〉 15수, 이민보의 〈악부〉 8수 등은 5언6구체 고시 형식이다. 나머지 291수는 시 형식은 6구체를 유지하지만 시구는 자유로운 장단구체로 되어 있다. 이렇게 오언절구나 칠언절구와 같은 전형적 한시양식도 있지만 5언6구체, 장단6구체, 장단사 등 다양한 양식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19세기에는 이와 같은 다양한 한역시 양식이 칠언절구체로 통일된다. 앞에서 보듯이 신위의 〈소악부〉 40수, 권용정의 〈동구〉 30수, 이유원의 〈소악부〉 45수, 정현석의 〈교방가요〉 96수, 이유승의 〈속소악부〉 10수, 오희상의 〈악부〉 15수, 원세순의 〈속악부〉 17수, 역자미상의 〈소악부〉 10수가 모두 칠언절구이다. 이처럼 17세기부터 시도된 다양한 형식적 실험들이 결국 칠언절구체로 정리된 점이 시조한역시의 양식에서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20세기에 한역된 심형진, 권상노, 김춘동의 작품이 모두 칠언절구인 것도 19세기의 한역 방식을 답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3. 특정 작품 대상의 한역시 연작

다음은 특정인의 시조를 한역한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                |                           |
|----------------|---------------------------|
| 金正國(1485~1541) | 鄉村十一歌(思齋集) 11수            |
| 宋 純(1493~1583) | 俛仰亭短歌 外(俛仰集) 20수          |
| 林億齡(1496~1568) | 繚李後白瀟湘夜雨之曲(石川集) 8수        |
| 申 欽(1566~1628) | 放翁詩餘(靑丘永言珍本) 30수          |
| 李起渤(1602~1662) | 憂國歌繚辭(漆室遺稿) 28수           |
| 李廷煥(1604~1673) | 悲歌(松岩遺稿) 10수              |
| 宋時烈(1607~1689) | 高山九曲歌翻文(宋書拾遺) 10수         |
| 宋時烈 외 9인       | 高山九曲歌詩(海東歌謠) 10수          |
| 徐鳳翎(1622~1687) | 檣栝圃隱和絶三峰短歌 外(梅壑先生遺稿) 14수  |
| 金起泓(1634~?)    | 寬谷八景歌(寬谷集) 8수             |
| 李夏朝(1644~1700) | 石潭九曲用曲名中一字題一絶> 10수        |
| 權益隆(18세기 초반)   | 風雅別曲(校註歌曲集) 8수            |
| 權 燮(1671~1795) | 翻老婆歌曲十五章(玉所稿) 15수         |
| _____          | 翻栗翁高山九曲歌用武夷權歌韻(玉所藏杏) 10수  |
| _____          | 黃江九曲用武夷權歌韻翻所詠歌曲(玉所藏杏) 10수 |
| 李 燦(1682~1750) | 繚訓民歌十八章(茅山亭遺稿) 18수        |
| 安昌後(1687~1771) | 閒說二十五并詩歌(閒說堂遺稿) 24수       |
| 梁周翊(1722~1802) | 感聖恩歌 10수(無極集) 10수         |
| 南極曄(1736~1804) | 愛景堂十二月詩(愛景堂遺稿) 12수        |
| _____          | 愛景堂十二月辭(愛景堂遺稿) 12수        |
| 姜必孝(1764~1848) | 陶山十二曲 12수(海隱別稿) 10수       |
| 金可淳(1771~1811) | 高山九曲詩畫屏題詩(高山九曲詩畫屏) 10수    |
| 申孝善(1783~1821) | 蓬萊樂府(郎巖遺稿) 10수            |
| 趙 梶(1783~1821) | 三竹詞流(三竹詞流) 100수           |
| _____          | 三竹詞流異本(三竹詞流異本) 89수        |
| 宋達洙(1808~1853) | 訓民歌繚辭(守宗齋集) 16수           |
| 鄭熙鎮(1822~1891) | 戒功臣歌 外(放翁遺稿) 12수          |

위의 작품들은 모두 특정인의 작품을 집중적으로 번역한 한역시 연작들이다. 전체 작품은 31인의 작품 26편에 한역시는 525수에 이른다. 위에서 보듯이 이런 유형의 작품은 16세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김정국과 임억령은 앞에서 보았던 이민성과 유형원보다 1세기나 앞 시대에 살았던 인물들이다. 항간에 유행하는 다양한 시조를 한역한 작품이 나오기 훨씬 전에 특정한 작품을 대상으로 한 한역시 연작이 출현한 것이다.

17세기에는 더욱 많은 작품들이 나왔다. 신희의 〈방옹시여〉 30수, 李德一(1561~1622)의 〈우국가〉를 번역한 이기발의 〈우국가번사〉 28수와 같이 비교적 장편의 한역시 연작이 나왔고, 송시열의 〈고산구국가번문〉을 비롯하여 이이의 〈고산구국가〉 10수를 한역한 한역시 연작들이 나왔다.

서봉령의 〈은팔포은화절삼봉단가〉는 정몽주의 〈단심가〉를 칠언절구로 재창작한 것인데, 김인후가 임형수의 죽음을 애도한 시조 “엇그제 버힌 남기”를 한시화한 〈又櫂栝河西哭錦湖哀歌〉, 金應鼎(1527~1620)이 명종의 승하를 슬퍼하여 지었다는 시조 “삼동에 뵈옵 님고”를 한시화한 〈櫂栝懈菴金處士聞明朝昇遐悲歌一闕〉 등 시조를 칠언절구로 한시화한 작품 14수를 지었다.

18-19세기에는 12인의 시조한역 연작시 16편이 창작되었고, 전체 한역시는 366수이다. 그 중 18세기에는 의외로 작품이 적게 나왔다. 이는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민간에 유행하는 시조를 채집하여 연작시 형태로 한역한 것이 18세기에 크게 유행한 것과 대조된다. 권섭이 기녀의 시조를 한역한 〈변노파가곡 십오장〉, 정철의 〈훈민가〉를 번역한 이경의 〈변훈민가십팔장〉, 자신의 시조를 한역한 권섭의 〈황강구곡용무이도가운번소영가곡〉, 안창후의 〈한설이십오병시가〉 등이 이 시기의 특징적 작품이다.

19세기에는 비교적 많은 작품이 나왔다. 남극엽이 자신의 시조를 초사체와 칠언절구로 각각 12수씩 한역한 것, 강필효가 이황의 〈도산십이곡〉을 한역한 것, 신희선이 부친 신헌조의 시조를 한역한 것, 조황이 100수에 달하는 자신



의 시조를 다양한 양식으로 한역한 것, 송달수가 정철의 훈민가 16수를 5언6구로 한역한 것, 정희진이 선조인 정훈의 12수를 한역한 것 등 특징적인 작품이 많이 나왔다. 특히 <고산구곡가>의 한역이 널리 알려진 데 비해 <도산십이곡>은 알려진 한역시가 거의 없었는데 <도산십이곡>을 한역한 강필효의 작품이 최근에 소개되었다.<sup>8)</sup>

이처럼 특정인의 시조를 대상으로 한 한역시 연작은 18세기에 비해 19세기에 더 활발하게 지어지고 더 다양한 작품이 나온 것이 특징이다. 이는 앞에서 보았듯이 향간에 유행하는 시조를 채집하여 한역한 것들이 18세기에 활발하게 창작된 것과는 대조적인 현상이다.

다양한 시조를 채집하여 한역한 한역시 연작들은 창작 배경이나 동기 면에서 대체로 동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시조의 가치에 대한 인식, 국문시가를 한시 양식으로 기록하여 보존하기 위한 목적, 민심과 풍속을 살피고 교화한다는 악부시의 창작의도 등이 그것이다. 특정인의 시조를 대상으로 한 한역시 연작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창작동기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이 경우는 특정인의 특정 작품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한역 배경과 동기가 보다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특정인의 특정 작품을 한역한 것들은 자신의 작품을 직접 번역한 경우와 다른 사람의 작품을 번역한 것들이 있다. 권섭의 <황강구곡...>과 안창후, 남극엽, 조항 등의 작품은 자기 작품을 번역한 것이 분명한 경우이고, 송순, 신희, 이정환, 권익룡, 양주익 등의 작품은 지역인지 타역인지 분명히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안창후의 <한설이십오병시가>와 남극엽의 <애경당십이월가>에 한역시가 병기된 것은 시조 작자가 시조를 짓고 한시로 번역하는 작업을 병행한 경우이다. 특히 남극엽은 자신의 시조 <애경당십이월가> 12수를 초사체와 칠언절구

8) 김명순, 「이황 시조의 한역에 대하여」, 『시조학논총』28, 한국시조학회, 2008.

의 2중으로 직접 번역하였다. 조항의 한역시는 삼죽사류 10수와 삼죽사류 이본 89수 등 매우 방대한 규모가 특징이다. 이들은 시조로 연작시를 짓고 다른 양식인 한시로도 재창작하고자 한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작품을 한역한 경우는 양식적 속성이 다른 시조와 한시의 서로 다른 기능과 장점을 취하고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상호 보완적 역할로 작품의 완결성을 기하고, 중세적 문자관에 따라 우리말 노래를 보편문자인 한문으로 기록하여 남기고 문집에 실기 위한 목적 등이 창작 동기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이와 같은 창작 동기는 다른 사람의 작품을 한역한 경우에도 해당된다. 그러나 이때는 한역의 배경이 보다 다양하다. 송시열이 <고산구곡가> 10수를 5언6구로 한역하고, 다시 송시열 등 10인의 노론계열 문인들이 1수씩 모두 10수를 창작하고, 권섭, 이하조, 김가순 등이 10수씩 창작한 것, 송달수가 정철의 <훈민가>를 한역한 것 등은 당파, 학맥, 가문이 관련된 것이다. 이들은 모두 서인 노론 계열 인사들이다. 특히 송달수는 한역시 서문에서 송시열의 후손이자 정철의 외손으로서 정철 후손의 요청으로 번역하였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sup>9)</sup> 강필효가 <도산십이곡> 12수를 번역한 것도 학맥과 가문을 통한 교유가 배경이 되었다.

선조의 작품을 한역한 경우도 있다. 신호선의 <봉래악부>는 부친 申獻朝(1752~1807)의 시조를 번역한 것이고, 정희진은 선조인 鄭勳(1563~1640)의 문집을 편찬하면서 <계공신가> 등 정훈의 시조 12수를 한역하여 수록하였다.

김정국의 <향촌십일가>, 권섭의 <번노과가곡십오장> 등은 시조를 지은 인

9) 宋達洙, 『守宗齋集』 권1, 「酒問答讖詞」. “世所傳誦星山別曲一篇及酒問答三疊訓民歌十六章, 松江先生鄭文清公歌辭也. 余少友環碧主人雲之甫, 相與邂逅於淳北之山中, 而請以文字讖之. 非謂余嫻於詞工於律, 特以余爲故家之後, 而又爲先生彌甥, 故請之再三而至於透紙, 則固知見笑於有限者, 而義不可辭, 茲敢草呈.”

물과의 개인적 관계가 작용한 것이다. 〈향촌십일가〉 11수는 향촌사족 朴世矩의 시조를 김정국이 5언6구체로 한역한 것이고, 권섭의 작품은 자신과 알고 지냈던 늙은 기녀의 시조 15수를 연작으로 한역한 특이한 작품이다.

임억령의 〈변이후백소상야우지곡〉 8수는 제목에 나타나듯이 李後白(1520~1578)의 시조 〈瀟湘八景〉 8수 중 제1수인 “蒼梧山 聖帝魂이”를 8수의 오언절구로 한역한 것인데, 첫수는 시조를 충실히 번역하고 나머지는 시조의 주제와 의경을 부연하여 한시화한 것이다. 서봉령이 〈은골포은화절삼봉단가〉 등에서 첫수를 번역하고 나머지는 시조의 주제를 반복하여 한시화한 것도 같은 방법이다. 이처럼 시조 한 수를 여러 수의 한시로 재현하는 것은 그만큼 시조의 가치와 작품성을 높이 평가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기발이 이덕일의 〈우국가〉 28수를 초사체로 번역한 것도 〈우국가〉의 작품세계와 가치를 굴원의 초사에 견주어 높이 평가한 결과라 할 수 있고, 이경의 〈변훈민가십팔장〉 18수, 강필효의 〈도산십이곡〉 12수 등도 특정 작품에 대한 애호와 가치 부여 및 수용의 결과물이다. 이처럼 특정 시조를 한역한 작품은 그 한역 배경과 창작 동기가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작품 형식을 살펴보면 김정국의 〈향촌십일가〉 11수, 송시열의 〈고산구곡가 변문〉 10수, 송달수의 〈훈민가변사〉 16수, 조황의 〈人道行〉(『三竹詞流』) 10수, 〈乘彝吟〉(『三竹詞流異本』) 19수 등은 5언6구체이다. 송순의 〈면양정단가〉 등을 한역한 것과 이기발의 〈우국가변사〉, 남극엽의 〈愛景堂十二月歌〉(辭) 12수 등 60수는 초사체를 사용하였다. 특히 이기발의 작품은 작품 창작의 배경과 작품 내용을 굴원의 초사와 관련지어 의도적으로 초사체를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신희, 김기홍, 권익룡 등의 작품과, 권섭의 〈변노파가곡 십오장〉, 양주익과 정희진의 작품 등 83수는 시조의 노랫말을 번역하기 용이한 장단구체를 사용하였다.

한편 송시열 등 서인노론 계열 인사 10인, 이하조, 권섭, 김가순 등의 〈고

산구곡가〉한역시와 이정환, 이경, 안창후 등의 작품, 남극엽의 〈애경당십이월가〉(詩) 12수, 강필효와 신희선의 작품, 조황의 『삼죽사류』 〈箕裘謠〉 40수와 『삼죽사류이본』 〈箕裘謠〉 40수 등은 모두 칠언절구체를 사용하였다. 이렇게 칠언절구체를 사용한 한역시는 모두 214수로, 이는 특정인의 시조를 한역한 경우의 절반 정도가 된다. 이 중 송시열 등의 한역시 연작은 시조의 노랫말과 내용을 충실하게 재현하기보다, 〈고산구곡가〉, 〈황가구곡가〉의 작품세계에 대하여 칠언절구체 한시로 화작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송시열의 〈고산구곡가변문〉은 5언6구체를 사용하여 시조를 충실히 재현한 것이고, 〈고산구곡가시〉는 시조의 형식이나 노랫말의 번역보다 시조의 주제와 의경을 한시 형식으로 재창작한 경우이다. 정철의 〈훈민가〉를 이경은 7언절구로, 송달수는 5언6구로 번역한 경우와, 남극엽이 자신이 작품을 초사체와 칠언절구 등 두 가지 양식으로 번역한 것도 같은 태도라 할 수 있다. 특히 남극엽은 한역시 양식을 초사체와 칠언절구의 2종으로 번역한 점이 특징이다. 초사체는 시조의 노랫말과 가창적 성격을 살려내고, 칠언절구는 시조의 주제를 전형적 한시 형식으로 재창작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조황은 5언6구체나 칠언절구 외에도 오언율시, 칠언율시 등 다양한 양식을 사용하였다.

#### 4. 시조 한역시 단편

지금까지는 10수 내외부터 수십 수까지 연작을 이루고 있는 경우를 살펴보았다. 한역시가 1수에서 5-6수 정도 되는 시조한역시 단편들도 많다. 이런 경우의 한역자는 70여명에 이르고 한역시는 약 20편 정도가 된다. 이 가운데는 작품 수는 적지만 시조와 한시 연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자료가 있다.

李光胤(1564~1637)의 〈飜藏六堂六歌拙製〉(『瀼西先生文集』卷2)는 李鰲의 〈六歌〉 중 4수를 5언6구체로 한역한 것으로, '이별 육가'의 내용과

성격을 알 수 있게 된 중요한 자료이다. 尹善道(1587~1671)의 〈夢天謠三章〉(『孤山遺稿』卷6, 歌辭)은 자신의 시조 〈몽천요〉 3수를 장단구로 한역한 것으로, 鄭澈(1536~1593)이 자기 시조 “樓畔 푸른 머구”를 오언절구체로 한역한 〈翻曲題霞堂碧梧〉와 같이 대표적 시조작가가 자기 시조를 한역한 자료이다. 송달수의 〈酒問答翻辭〉(『守宗齋集』卷1)는 정철의 시조 〈주문답〉 3수를 5언6구체로 번역한 것이다. 이상의 것들은 5언6구체로 주로 시조의 형식과 내용을 재현하는 데 치중한 것들이다.

崔慶昌(1531~1583)의 〈翻方曲〉(『孤竹遺稿』)은 洪娘의 유명한 시조 “뒹벼들 갈희 거거”를 칠언고시체로 한역한 것이고, 黃胤錫(1729~1791)의 〈改翻金龍溪止南美人詞一絶〉(『頤齋亂藁』 권7)은 王邦衍의 “千萬里 머 나먼 길희”를 칠언절구로 한역한 것이다.

金安國(1478~1543)의 〈清江曲〉(『慕齋集』 권1)은 자신의 시조를 칠언절구로 한역한 것이고, 〈江月曲〉은 沈達源(1494~1535)의 시조를 김안국이 칠언절구로 한역한 것이다. 이처럼 자신의 시조를 직접 한역한 경우도 있고, 타인의 작품을 한역한 경우도 있는데, 周世鵬(1495~1544)의 〈翻歌〉(『武陵雜稿別集』) 2수와, 많은 가집에 실려 있는 趙存性(1553~1627)의 〈呼兒曲四調〉 4수 같이 지역인지 타역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林際樓禽定 天邊新月高  
危橋僧獨去 雲寺暮鍾遙<sup>10)</sup>  
잘 새는 나리 들고 새 들은 도다온다  
외나모 드리에 혼자 가는 더 둥아  
네 달이 언마나 흐관디 먼 북소리 들리느니(청진 416)

夢中逢項王 提刀更太息

10) 陳景文, 『剡湖集』 권2, 〈山下謠〉

至今不渡江 我亦不自識<sup>11)</sup>  
 심의 項羽를 만나 勝敗事를 議論 하니  
 重瞳의 눈물지며 칼 치고 흐는 말이  
 至今에 不渡烏江은 나도 몰나 흐노라(청연 47)

功名與富貴 付與世人輩  
 無語青山裏 無事臥自在  
 春雨自生蕨 知是我分內<sup>12)</sup>

功名 富貴과란 세상 사름 맞져두고  
 말 업슨 江山에 일 업시 누어시니  
 봄비에 절로 난 山茶 괴분인가 흐노라(청진 310)

위의 작품은 陳景文(1561~1642), 金世濂(1593~1646), 丁一愼(1683~1738) 등이 민간에 전하는 시조를 수집하여 한역한 것들이다.

진경문이 한역한 “잘 새는 나르 들고”는 진경문을 포함하여 이기휴(「단가십구장」 1), 이형상(「금속행용가곡」 18, 夕眺歡), 마성린(「단가해」, 장단사십오수 13), 황윤석(「고가신변이십구장」 6), 오희상(「악부」 8), 역자 미상(「면양정단가」 5) 등 7명이 한역하였다. 비록 작품이 한 수이지만 7명의 한역자 중 가장 먼저 한역하였으며, 이는 『청구영언』보다 1세기나 앞서 이 작품을 채집하였다는 의미를 갖는다.

김세렴은 “江湖에 期約을 두고”와 위의 시조 등 두 수를 한역하였는데 위의 작품은 제2수이다. 위에서 보듯이 제목을 ‘악부’로 붙이고 있다. 작품이 2수에 불과하지만 김세렴은 악부시를 짓는다는 생각으로 시조를 채집하여 한역

11) 金世濂, 『東溟集』 권1, 〈樂府二絶〉 2.

12) 丁一愼, 『臨窩遺稿』, 〈仍俗歌成句二首〉 2.

한 것이다. 위 시조의 종장이 『瓶窩歌曲集』에는 “至今에 不渡烏江을 못너 슬허호노라”로 나온다. 따라서 『병와가곡집』 시대에는 위의 시조의 노랫말에 변개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정일신은 시조 “대 심거 울을 삼고”와 “功名 富貴과란” 등 2수를 한역하였는데 위의 것은 제2수이다. ‘시속의 노래를 따라 시구를 이루었다(仍俗歌成句)’고 제목을 붙인 데서 보듯이 시조를 채집하여 한시를 짓는다는 분명한 창작의식을 가지고 한역시를 지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한역시는 『청구영언』의 기록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런데 종장 “봄비에 절로 난 山菜 곡분인가 호노라”가 『병와가곡집』에는 “갑 업슨 淸風明月이 니 벗인가 호노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정일신의 한역시는 김천택이 시조를 수집할 당시의 시조를 보존하고 있는 의미가 있다. 權譚(1569~1593)의 <飜俗傳紙鶯歌>도 시조 “우리 집 모든 익을”을 칠언절구로 번역한 것이다.<sup>13)</sup> 이 시조는 정철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철의 문인인 권필이 ‘민간에 전하는 노래’라고 한 것을 믿을 수 있다고 본다. 이처럼 진경문, 김세렴, 정일신 등은 ‘속가’ 즉 민간에 유행하던 시조를 채집해서 한역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1수에서 5-6수 정도가 되는 시조한역시 단편들을 살펴보았다.

이들은 작품 수는 적지만 한역 동기, 시조의 수집 태도, 작품 형식 등에서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 5. 원가 미상 작품과 중복 한역된 작품

현재 번역 대상 작품인 원시조가 확인되지 않은 작품이 135수이다. 崔淑精(1432~1479), <用鄉人俚語以解之>, 周世鵬(1495~1544), <飜歌> 등과

13) 權譚, 『石洲集』 권7, <飜俗傳紙鶯歌>.

같이 한두 편의 단편적 작품도 원가 미상인 것이 있지만, 이민성의 〈문인창리 가운데이시지〉 중 5수, 이기휴의 〈단가십구장〉 중 4수, 남구만의 〈변방곡〉 중 2수, 이형상의 〈호파구〉 중 2수, 홍양호의 〈청구단곡〉 중 5수 등 시조한역시 연작 가운데 일부 작품들 중 원가가 밝혀지지 않은 것이 상당수 있다. 특히 김정국의 〈향촌십일가〉 11수, 이광운(1564~1637)의 〈변장육당육가졸제〉 4수, 이형상의 〈금속행용가곡〉 平調第一 11수, 권섭의 〈빈노파가곡십오장〉 15수 등은 원가가 한 수도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다.

이처럼 한역 대상 시조가 확인되지 않은 한역시가 상당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전하지 않는 시조의 내용과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

落葉이 물 밭에 지니 넘넘히 秋聲이라  
 風伯이 뷔 되여 다 쓰려 ㅅ고나  
 두어라 崎嶇山路를 덩허둔들 엇더리(480)

落葉響馬蹄            秋聲箇箇俱  
 風吹掃山徑            何似覆崎嶇<sup>14)</sup>

落木馬蹄響            葉葉秋聲  
 風伯爲箏            掃盡清  
 彼崎嶇山            路是欲覆<sup>15)</sup>

馬蹄行踏落葉            步步皆生秋聲  
 西風捲向山頭去        秋聲却從雲間生<sup>16)</sup>

14) 李民宥, 『敬亭集』 卷4, 〈聞人唱俚歌韻而詩之〉 4.

15) 李衡祥, 『芝嶺錄』, 〈今俗行用歌曲〉 53, 落葉護.

16) 洪良浩, 『耳溪集』 卷1, 〈青丘短曲〉 31, 落葉.



위의 작품들은 시조 1수에 대해 중복해서 한역된 예를 보인 것이다. 시조 한역시 중에는 같은 시조를 중복해서 한역한 작품들이 많이 있다. 본고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편씩 한역된 시조 87수, 3편씩 한역된 시조 34수, 4편씩 한역된 시조 26수, 5편씩 한역된 시조 7수, 6편씩 한역된 시조 11수, 7편씩 한역된 시조 3수, 9편으로 한역된 시조 1수, 10편 이상으로 한역된 시조 4수 등이다. 그래서 확인된 한역 대상 시조 759수 중에서 2편 이상으로 중복되어 한역된 시조가 173수에 그 한역시는 571편에 이른다.

여러 편으로 중복 한역된 작품을 살펴보면 주로 취락 풍류와 강호한정의 작품이 많고, 애정을 노래한 것, 늙음을 탄식한 것 등이 주로 한역되었음을 알 수 있다. 3편으로 한역된 것 중 풍류와 강호한정을 노래한 것은 “간밤에 부던 바람”, “金絲烏竹 牡丹芭蕉와”, “綠水青山 김흔 골에”, “落葉이 밀밭에 지나”, “물 아래 그림자 지나”, “細버들 柯枝 것거”, “小園 百草叢에”, “淸溪上 草堂外에”, “秋江에 밤이 드니”, “藥山東臺 여지러진 바위”, “이러도 太平聖代”, “靑山도 절노 절노” 등이고, 애정시조는 “金爐에 香盡호고”, “冬至스들 지나긴 밤을”, “百草를 다 심어도”, “碧梧桐 시른 뜻은”, “思郎이 거긔말이”, “오늘도 저무러지게”, “한숨은 바람이 되고”, “꿈에 든이는 길히” 등이며, 탄로시조는 “바람아 부지을 마라”, “半남아 늙어시니”, “오늘이 오늘이쇼셔”, “長生術 거긔말이” 등이다.

4편으로 한역된 것 중 “東窓이 붉앗는야”, “萬頃滄波之水에 등등 썬는”, “瀟湘江 細雨中에”, “즈니 집의 술 익거든”, “平沙에 落雁호고”, “黃山谷 도라드러” 등은 풍류와 강호한정 시조이고, “너 언지 無信호여”, “늬라셔 나 자는 窓밖과” 등은 애정시조이며, “百年을 可使人人壽ㅣ라도”, “白髮에 섭홀 지고” 등은 탄로시조이다.

5편으로 한역된 것에는 “十年을 經營호야”, “人生이 둘가 셋가” 등은 풍류와 강호한정 시조이고, “물은 가자 울고”는 애정시조이고, “조오다가 낙시디

를”는 탄로시조이고, 6편으로 한역된 것 중 “松壇의 선죽 씨야”, “집方席 내지 마라”, “靑涼山 六六峯을”는 풍류시조, “네라 이러하면”, “靑山裡 碧溪水야”는 애정시조, “뉘라서 날 늙다 흐느고”는 탄로시조이다. 7편으로 한역된 것에는 이별의 노래 “들쓰자 비 썩나니”, 풍류 한정의 노래 “못노라 저 禪師야”, “잘 새는 느라들고”가 있고, 강호한정의 노래 “江湖에 期約을 두고”는 金世濂(〈樂府二絶〉1), 柳馨遠(〈翻俗歌〉11), 南肅寬(〈短謠〉5 感君恩曲), 金養根(〈東調〉22 際遇1), 權用正(〈東謳〉19), 吳憲常(〈樂府〉12 答君恩), 李裕承(〈續小樂府〉2, 白鷗盟), 鄭顯奭(〈教坊歌謠〉3, 68) 등이 8편으로 한역하였다.

10편 이상으로 한역된 것을 보면, “三冬에 뵈웃 님고”를 11인이 18편으로 한역하였고, “이런들 엇더흐며”(〈하여가〉)는 10개 문헌에 10편, “이 몸이 죽어죽어”(〈단심가〉)는 20개 문헌에 28편의 한역 자료가 들어 있다. 그러나 이런 작품들은 특정인과 특정 문헌에 치중되어 있고 특히 〈하여가〉와 〈단심가〉의 한역시는 부분적으로 글자가 다른 것이 있으나 크게 다르지 않으며, 한역시 연작에 채록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 한역시 연작에 포함된 것이 “三冬에 뵈웃 님고”가 3편, 〈단심가〉는 4편이고, 〈하여가〉는 1편뿐이다. 그리고 “蒼梧山 聖帝魂이”는 3편에 개별 작품이 11수인데 林億齡의 〈緜李後白瀟湘夜雨之曲〉 9수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중복해서 한역된 경우를 살펴보았다. 5편으로 한역된 “楚江 漁父 들어”, “風波에 놀난 沙工”, 6편으로 한역된 “南薰殿 둘 붉은 밤에”, “仁風이 부는 날”, “鐵嶺 노푼 峯에”, “靑石嶺 지나거냐”, “泰山이 늙다 흐되” 등과 같이 주제와 작품의 배경 고사가 사대부들의 공감을 사서 거듭 한역된 것도 있지만 대개 풍류와 강호한정, 애정, 탄로의 노래들이 중점적으로 채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원가 미상의 한역시와 중복 한역된 작품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

재 번역 대상 작품인 원시조가 확인되지 않은 작품이 135수인데 이들은 전하지 않는 시조의 내용과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며, 중복해서 한역된 작품들은 시조의 수용 양상을 파악하고 작품을 이해하기 위한 자료적 가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 6. 결론

시조의 한역은 주로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이루어졌으며 시조를 한역한 문인은 120명 정도이다. 본고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역이 된 시조는 작품이 밝혀진 것이 759수이고 원시조(번역 대상 시조)를 확인하지 못한 것이 135수이다. 따라서 900여수에 가까운 시조가 한역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조 1수가 여러 편의 한역시로 번역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 시조 한역시는 더 많다. 2편 이상으로 중복되어 한역된 시조가 173수에 그 한역시는 571편에 이른다. 본고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체 한역시는 1356수에 달한다.

시조의 한역은 한두 편씩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10여수에서 100수가 넘는 작품에 이르기까지 연작시를 이루는 경우가 많다. 시조 한역시 중에서 10수 이상의 연작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이 1177수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시조 한역시 연작에는 당대에 민간에 유행하는 시조를 임의로 채집해서 한역한 경우와 원래 연작형을 이루고 있는 특정 작품이나 특정 인물의 작품만 한역한 경우가 있다. 민간에 유행하는 시조를 임의로 채집해서 한역하여 연작을 이룬 것이 22인의 연작시 27편에 전체 시조 한역시는 652수에 달하고, 특정 인물의 특정 작품을 집중적으로 한역한 경우가 30인의 연작시 26편에 전체 시조 한역시는 525수에 이른다. 그리고 1수에서 5-6수 정도로 단편적

인 형태를 이루고 있는 시조 한역시 단편은 67인의 작품에 한역시는 180수 정도가 된다.

한시 양식으로 번역되어 전승된 시조한역시 자료는 노랫말이 전하지 않는 시조의 내용을 파악하고, 시조의 창작과 전승 과정을 등을 연구하는 데 필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며, 국문문학과 한문학이 상호작용한 교섭양상과 조선 후기 한시사의 변화 양상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적 가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김명순, 「반계 류형원의 시조 한역 양상과 의미」, 『국어교육연구』, 42, 국어교육학회, 2008.
- 김명순, 「이황 시조의 한역에 대하여」, 『시조학논총』, 28, 한국시조학회, 2008.
- 김문기·김명순, 『조선조 시가한역의 양상과 기법』, 태학사, 2005.
- 김윤조, 「유득공의 시조 한역」, 『문헌과해석』, 40, 태학사, 2007.
- 박노춘, 「시조한역사화총집」, 『어문연구』 5·6, 일조각, 1974.
- 박노춘, 「시조한역총람」, 『국어국문학』 62·63, 1973.
- 박을수, 「시조한역문헌」, 『시조문학사전』, 아세아문화사, 1992.
- 심재완, 「시조한역일람」, 『교본역대시조전서』, 세종문화사, 1972.
- 장정수, 「옥소 권섭의 시조 한역시 번노파가곡십오장 및 관련 작품에 대하여」, 『어문논총』 44, 한국문학언어학회, 2006.
- 정병욱, 『시조문학사전』, 신구문화사, 1982.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 지식산업사, 1994.
- 조해숙, 『조선후기 시조한역과 시조사』, 보고사, 2005.

<Abstract>

**The literary characteristics and material status about the translation of Sijo into Chinese poetry**

Kim, Myoung-sun

In this study, we will find out and understand of the literary characteristics and the material status about the translation of Sijo into Chinese poetry which is the representative genre in Korean traditional poetry.

Most of the work was done from 17th 19th century, and there are about 120 literary men who translated Sijo. 759 works are translated into Chinese poetry and we cannot find 135 works' original poetry. Therefore about 900 works are translated into Chinese poetry.

One Sijo can be translated into more than 1 Chinese poetry, so there are more translated works. According to this study, there are 1356 translated works in total. Many works are done in piece by piece, however most of them are in series with many poems from 10 to 100.

First, some popular Sijo was translated into series. Second, some serial Sijo or some Sijo of particular writers are translated into Chinese works. In first case, there are 22 writers' 27 works of Sijo along with Shinwi's "Soakbu" and 652 translated works. In the other case, there are 30 writers' 26 works of Sijo including 10 「Kosangugokga」, which was translated by Song shiyul. There are 511 translated works. A lot of translations of Sijo into Chinese poetry are in various documents. They are in personal collections of works such as 「Beonbanggok」 in Namguman's 『Yakchunjip』. The works are in books of poems such as Hong yangho's 「Chunggudangok」 and Shinwi's 「Jahasoakbu」. In collection of Sijo like Shin heum's 「Bangongshiyeo」 in 『Chungguyoungwon』, there are some translated works as well.

We can understand Sijo which we do not know the lyrics now by studying the materials about the translation of Sijo into Chinese poetry.

The materials about the translation of Sijo into Chinese poetry have necessary value for studying the creation and tradition process of Sijo. In

addition, with the materials, we can study the interaction between Korean literature and Chinese one, and also we can study about the changing aspects of Chinese poetry in Late Chosun.

Key Words : Sijo, chinese poetry, translation of chinese poetry into Sijo, Soakbu.

이 논문은 2008년 11월 30일(월)까지 투고 완료되어,  
2009년 1월 4일(일)부터 1월 14일(수)까지 심사위원이 심사를 하고,  
2009년 1월 22일(목)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